

2017년 하반기 지방직 9급 국어 기출문제 해설 (5)  
이유진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1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르네상스 이래 화가들은 자신의 그림이 세상을 향한 창처럼 보이기를 바랐다. 그리하여 그림의 장면이나 주제를 하나의 고정된 시점에서 본 것처럼 그렸으며, 이러한 환영을 더욱 심화하기 위해 원근법적인 형태묘사를 택했다. 그러나 1907년부터 피카소와 브라크는 전통적인 원근법의 관례를 버리고 리얼리티를 묘사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정물화에서 그들은 눈이 카메라 렌즈처럼 하나의 시점으로 세상을 인식한다는 기존의 믿음에 도전하여 뇌가 어떻게 다양한 시점과 연속적인 시간에 걸친 시각적인 정보를 점진적으로 축적해 나가는지를 보여 주고자 했다.

피카소와 브라크의 혁명적인 그림은 과거의 어떤 그림과도 완전히 다르게 보이지만, 두 화가는 모두 ㉡세잔의 작업 방식에서 영향을 받았다. 과거의 화가들은 일관된 원근법 체계를 이용해 그림에 안정성과 깊이감을 부여하고자 했으나, 세잔은 회화적 공간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불안한 각도로 면을 기울여 안정적인 정물화에 역동감과 긴장감을 부여했다. 그는 정물의 적절한 위치를 찾기 위해 고심하며 매우 조심스럽게 화면을 구성했다. 다양한 각도와 시점을 미묘하게 결합하여 세잔은 세심하게 배열한 정물에 더욱 완벽한 시점을 부여하고자 노력했다.

세잔이 죽은 지 1년 후 파리에서 열린 세잔의 대규모 회고전은 피카소와 브라크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으며, ㉢피카소와 브라크는 즉각 세잔의 발상을 도입하여 초기 입체주의 회화로 발전시켰다. 이들은 초기 정물화에 동시적인 시점의 결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실험했다. 피카소와 브라크는 사물의 형태를 파편화할 때까지 왜곡했으며,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정물의 주위를 걸어 다니며 각 단계의 다양한 세부 사항을 관찰하는 것 같은 인상을 만들어 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그림은 시간과 공간에 따른 움직임의 감각을 만들어 냈다.

- ① ㉠과 달리 ㉡과 ㉢은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 ② ㉡과 달리 ㉠과 ㉢은 단일한 시간과 공간을 기준으로 대상을 파악한다.
- ③ ㉢과 달리 ㉠과 ㉡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회화의 목적이라 여긴다.
- ④ ㉠, ㉡, ㉢은 모두 가까이 있는 대상은 크게, 멀리 있는 대상은 작게 표현하는 방식을 취한다.

[정답] ①

[출제영역] 독해 - 비문학 - 내용 확인

[해설]

㉠은 하나의 고정된 시점에서 본 것처럼 그림을 그렸고, 눈이 하나의 시점으로 세상을 인식한다는 믿음을 지녔다. 반면, ㉡, ㉢의 다양한 각도와 시점을 결합하는 시도 등은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② ㉠은 하나의 고정된 시점에서 그림의 장면 및 주체를 조망했으며, 첫째 문단의 ‘하나의 시

점으로 세상을 인식한다는 기존의 믿음'은 ㉠을 의미한다. 단일한 시간과 공간을 기준으로 대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과 부합하는 설명이다. 반면 ㉡과, ㉢에서 영향을 받아 생겨난 ㉣은 공간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다양한 각도와 시점을 결합했고, 사물의 형태를 파편화 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그림은 시간과 공간에 따른 움직임의 감각을 만들어 냈다'는 내용을 통해, 이들은 다양한 시간과 공간을 기준으로 대상을 파악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 ㉢과 달리 ㉠은 단일한 시간과 공간을 기준으로 대상을 파악한다.'라고 수정해야 한다.

㉢ ㉠은 '자신의 그림이 세상을 향한 창'처럼 보이기를 원했다. 즉,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회화의 목적이라고 본 것이다. 반면 ㉡과 ㉢은 회화적 공간을 왜곡하거나, 사물의 형태를 파편화하는 시도를 하였는데, 이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 ㉢과 달리 ㉠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회화의 목적이라 여긴다.'라고 수정해야 한다.

㉣ '가까이 있는 대상은 크게, 멀리 있는 대상은 작게 표현하는 방법'은 전통적인 원근법에 해당한다. 이는 단일 관점에서 대상과 공간을 파악하는 ㉠이 취한 방식이다. ㉡과 ㉢은 일관된 원근법 체계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만 가까이 있는 대상은 크게, 멀리 있는 대상은 작게 표현하는 방식을 취한다.'라고 수정해야 한다.

#### 19.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단어란 흔히 문장을 구성하는 단위 가운데 분리하면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는 최소의 자립 형식이라고 정의한다. '오늘 작은언니는 새 옷을 입었다.'라는 문장에서 '오늘, 새, 옷'은 단어들이다. '작은언니'는 '작은'과 '언니'로 분리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분리하면 본래의 뜻과는 다른 뜻이 되기 때문에 '작은언니'는 한 단어이다. '입었다'는 '입-었-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들 각각 홀로 쓰일 수 없고 세 단위가 모여서 하나의 자립 형식을 이루기 때문에 '입었다'는 그대로 한 단어가 된다.

그러나 단어의 정의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작은언니는, 옷을'의 '는, 을'과 같은 조사는 '작은언니, 옷'과 분리하여도 제 뜻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조사는 홀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체언 등에 붙어서만 쓰인다. 이런 까닭으로 국어의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이와 유사한 어려움은 의존 명사에서도 볼 수 있다. '한 그루, 줄 것'의 '그루, 것'은 의존 명사인데, 이들은 분리하는 가능하지만 홀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서만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의존 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통사적 성격이 명사와 동일하다. 따라서 의존 명사는 명사와 동일한 성격을 지니는 단어로 취급한다.

국어 단어는 그 형성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하나는 '구름, 겨우, 먹다'처럼 단일한 요소가 곧 한 단어가 되는 경우이다. '구름, 겨우'와 같은 단어들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단일한 구성을 보이는 예들로서 이들은 단일어라고 한다. '먹다'는 어간 '먹-'에 어미 '-다'가 붙어 이루어진 구성이지만 '먹-'은 의존 형태소로서 단독으로는 쓰일 수 없으며, '-다'는 순수하게 문법적 기능만을 나타내는 어미로서 단어의 구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하여 한 단어가 되는 경우이다. 이들은 단일어와 구별하여 복합어라고 한다. 복합어는 다시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셋노랄다, 무덤, 잠'은 어휘 형태소인 '노랄다, 묻-, 자-'에 '셋-, -엄, -ㅁ'과 같은 접사가 덧붙어서 파생된 단

어들이다. 이처럼 어휘 형태소에 접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들을 파생어라고 한다. ‘손목, 고무신, 빛나다, 날짐승’과 같은 단어는 각각 ‘손-목, 고무-신, 빛-나다, 날-짐승’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각각 어근인 어휘 형태소끼리 결합하여 한 단어가 된 경우로 이를 합성어라고 한다.

- ① ‘샐노랏다, 손목’은 복합어이다.
- ② ‘그루, 것’은 그 통사적 성격이 명사와 동일하다.
- ③ ‘는, 을’은 체언 등에 붙어서만 쓰이므로 단어이다.
- ④ ‘작은언니’는 최소의 자립 형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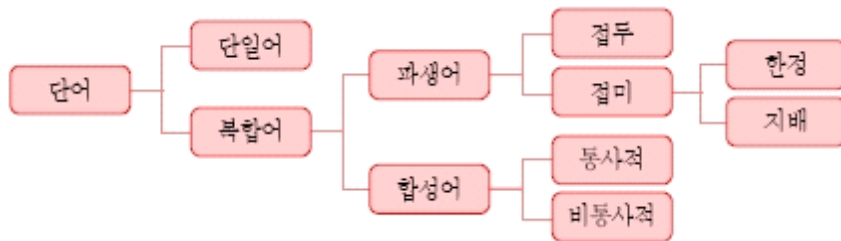
[정답] ③

[출제영역] 이론 문법 - 형태론 + 독해(언어학) - 내용일치

[해설]

2문단에서 ‘는, 을’과 같은 조사는 앞말과 분리하여도 제 뜻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사는 홀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체언 등에 붙어서만 쓰이므로 국어의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참고) 단어의 분류(나래국어 알기 쉬운 문법 p. 92)



[오답 해설]

- ① 마지막 문단을 참고했을 때, ‘샐노랏다’는 어휘 형태소인 ‘노랏다’에 접두사 ‘샐-’이 덧붙어서 파생된 단어이다. 이처럼 어휘 형태소에 접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를 파생어라고 한다. ‘손목’은 명사 ‘손’과 명사 ‘목’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각각 어근인 어휘 형태소끼리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파생어와 합성어는 모두 복합어에 해당한다.
- ② 둘째 문단을 참고했을 때, ‘그루, 것’과 같은 의존 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통사적 성격이 명사와 동일하다.
- ④ 첫째 문단을 참고했을 때, ‘작은언니’는 ‘작은’과 ‘언니’로 분리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분리하면 본래의 뜻과는 다른 뜻이 되기 때문에 ‘작은언니’는 한 단어이다. 단어란 흔히 문장을 구성하는 단위 가운데 분리하면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는 최소의 자립 형식이므로 하나의 단어인 ‘작은언니’는 최소의 자립 형식이다.

2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 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계고장이예요.”

“기어코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두어 개와 조린 감자.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계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중략) ...

어머니는 조각 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곧추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쳤다.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 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 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동사무소 주위는 시장 바닥과 같았다.

-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 ① ㉠: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아버지’의 왜소함을 드러낸다.
- ② ㉡: 가난한 도시 빈민의 힘겨운 삶을 전쟁에 비유한다.
- ③ ㉢: 맹목적이고 무리한 산업화의 위압적 분위기를 나타낸다.
- ④ ㉣: 주민들의 노력으로 삶이 개선될 것임을 암시한다.

[정답] ④ - 독해 - 문학 - 현대 산문의 내용 이해

[해설]

철거 대상 지역에 살고 있는 ‘행복동 주민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약자들이다. 그들이 동사무소에서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것을 서술자는 ‘쓸데없는 짓’이라며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주민들의 노력으로 삶이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작품 해설]

- ◆ 갈래: 단편 소설,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중 8번째 연작
- ◆ 성격: 비판적, 사회 고발적, 상징적

- ◆ 배경: 시간 - 1970년대, 공간 - 서울의 변두리
- ◆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1부 영수, 2부 영호, 3부 영희의 시점)
- ◆ 제제: 도시 빈민과 노동자의 삶
- ◆ 주제: 도시 빈민이 겪는 삶의 고통과 좌절
- ◆ 특징: ① 1970년대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노동자와 도시 빈민의 삶을 바탕으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폭로하고 있다.
- ② 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여러 논제들을 작품 속에 날카롭게 제시하고 있다.
- ③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환상적 성격을 지닌 공간을 도입하여 동화적 느낌을 주고 있다.
- ④ 난쟁이를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산업화에 소외된 계층의 아픔을 드러내었다.
- ⑤ 주로 짧은 단문을 사용하여 독자들의 해석 여지를 넓혀 주었다.

[오답 해설]

- ①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아들이 아버지를 '난쟁이'라 하는 것은 아버지의 신체적 장애를 표현하는 동시에 산업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약자로 인식된 '왜소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 ②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운, 가난하게 사는 도시 빈민의 삶을 '날마다 지기만 했다'며 '전쟁'에 비유하였다.
- ③ 산업화로 인한 양극화의 폐해를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 간신히 살고 있던 난쟁이네 가족의 좁은 마당을 공장 굴뚝 그림자가 뒤덮는 것은 맹목적이고 무리한 산업화에 짓눌린 하층민의 그늘진 삶을 표현한 것이다.